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새 수목극 '나는 전설이다' 김선아 주인공에

배우 김선아가 SBS TV 새 수목극 '나는 전설이다'(극본 김윤정, 연출 김형식)의 주인공 '전설이' 역을 맡는다.

극 중 전설이는 고교시절 왕십리를 주름잡던 '날라리'였지만 여동생의 뒷바지를 위해 최대 로망에 사환으로 들어간 후 촉망받던 변호사를 유혹해 법조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는 인물이다.

결혼 후 시댁의 무시와 냉대를 뺨뺨함으로 버티며 최상류층 사모님으로서 우아한 인생을 이어가던 전설이는 그러나 결국 시댁의 가식과 이기주의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하고, 법조가문인 시댁을 상대로 세기의 이혼소송을 벌이게 된다.

“이번엔 섹시 힙합으로 흘러드리죠”

4집 음반 낸 **이효리**



“스스로도 톱스타라고 인정하나요?”(질문) “악성 댓글이 많은 걸 보면 사람들의 관심도만큼은 1위인 것 같아요.”(답)

“레이디 가가, 비온세 스타일을 모방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질문) “세계적인 트렌드를 버리기보다, 저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는 게 중요하죠.”(답)

이효리(31)와의 대화는 늘 굳더더기가 없다.

최근 4집 '에이치.로지(H.LOGIC)'를 발표한 이효리는 음반 발매 이틀 전 음원이 불법 유통돼 속상할 법도 한데 “작사·작곡가들과 소속사의 타격이 커 미안했다. 속상한 마음이었지만 눈물이 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당찬 말투다.

그는 “음반에 14트랙을 채운 건 싱글과 미니음반을 주로 내는 걸그룹과 다른 길이고,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음반에 푼 쓰고 옛날처럼 멋지게 뮤직비디오 찍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효리가 음악적인 변화를 위해 선택한 장르는 힙합. 데모곡 1천곡을 받아 100여 곡을 추렸고 10여 곡을 선곡했다.

“어린 시절부터 힙합을 좋아했어요. 힙합 사운드를 기반으로 사우스 힙합, 갱스터 힙합, 레트로 힙합, 힙합 리듬의 발라드 등 장르를 확장해왔죠. 유명세보다 실력 있는 래퍼, 눈여겨본 걸그룹 래퍼들이 참여했고 저도 이번에 랩을 좀 했어요. 하하,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기게 랩하는 모습만 보여 드려 걱정되네요.”

타이틀곡 '치티 치티 뱅 뱅(Chitty Chitty Bang Bang)'과 'bring it back', '그네', '메모리' 등의 수록곡에 리얼 악기를 쓴 것도 전자음의 흥수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사람들은 걸그룹 강세를 위기처럼 말하는데 오히려 기회예요. 걸그룹들이 많으면 다른 모습으로 나올 때 차별화도 되고 혹시 그간의 지루함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패션, 헤어, 메이크업도 걸그룹처럼 귀엽고 여성스럽기보다 힙합 음악에 맞게 카리스마 있는 중성미에 초점을 맞췄고요.”

어느덧 그는 손담비, 아이비 등 섹시한 콘셉트를 무기로 한 여성 솔로 가수들이 넘어서 할 기준점이 돼 버렸다. 음반기획사들은 '이효리와 맞대결'로 홍보도 한다.

“이제 '맞대결'에 제 이름이 안 붙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하하. 어느 날 맥주를 열심히 마시는데 '손담비 운동 중독' 기사가 나니 자괴가 되더라고요. 활동 두달 전부터 필라테스로 몸을 다졌죠. 하지만, 앞으로 이름 옆에 누군가를 붙이지 못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의 줄임말)'이 돼야죠.”

예전에는 결혼하면 연예계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처럼 말했던 이효리는 생각이 좀 달라져 있었다.

“180도 바뀌었어요. 사랑과 일을 병행해야 둘 다 잘 될 것 같아요. 일을 그만두려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듀서, 감독, 사진작가 등 제가 일하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자신을 '내수용'이라고 칭하며 해외 진출에 소극적인 점도 사실 모험심이 강하지 않은 성격인데다, 연애하고 싶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싶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재테크를 못한 것 같다”며 “주식 투자도 한번 해봤는데 엄청 망했다. 예전에 부모님이 천안에 땅을 좀 사두고, 집 한 채를 마련했다. 본업에 충실하고자 부업에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 요즘은 무대 의상 등 옷값에 많이 투자한다.”

그는 “이번 음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보며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밝아졌다”며 “결혼한 여자도 댄스 가수를 할 수 있겠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 연기에도 도전하고 MC로도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3년만에 안방극장 컴백 명세빈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행복해요”

SBS 일일드라마 '세자매'로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명세빈은 “오랜만에 일을 하는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SBS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명세빈은 “그동안 몇 작품 제언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자극적인 이야기 기들이 많았다”며 “세 자매”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을 행복하게 했다”고 말했다.

명세빈이 맡은 김은영은 세 자매 중 첫째로,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여상에 진학해 취직한다. 직장 동료였던 남편과 결혼해 성실한 남편을 떠받들며 잘 살았지만, 남편의 첫사랑이 나타나면서 위기를 맞는다.

명세빈은 2007년 드라마 '궁S' 이후 결혼 5개월 만인 2008년 1월에 이혼했으며, 지난해 방송된 MBC 드라마 '잘했군 잘했어'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자진 하차한 바 있다.

명세빈은 “(드라마 하차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긴 호흡의 드라마를 감당할 수 없었고, 복귀하기에는 마음도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작품으로 복귀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다”며 “내가 배우구나, 내 자리가 여기였구나” 하는 생각에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행복하다”고 전했다.

명세빈은 “쉬는 동안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다”며 “잊혀진다는 생각은 없었고, '나한테 맞는 배역이 있다면 오겠지' 하는 여유는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www.kimyoung.co.kr

김영면 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 222-8088, 227-8088

개강 ▶ 5월 3일 대학편입 강좌안내		왜! 편입하면 김영인가?	
편입영어	기초이론반	편입영어 1년반을 짧게 이수하여 2학기부터 편입영어 1학기만 수강하는 과정	편입특수반
	분과특수반	기초이론반과 1학기만 수강하는 편입영어 1학기만 수강하는 과정	
편입수학	선형대수반	수학이론과 실용수학으로 구성된 편입수학 1학기만 수강하는 과정	입학특수반

입학특수반

대학편입 전문

입학특수반

대학편입 전문

입학특수반

대학편입 전문

상위권대학편입 / 전남대편입 / 일반편입 / 학사편입 / 사범대편입